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홍콩

-하각산 (Joyce Ho) 홍콩경제무역대표부(도쿄) 수석대표

자유롭고 개방적인 홍콩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불안, 지정학적 긴장의 여파, 코로나-19 대유행 등 홍콩에 전례 없는 여러 도전이 제기되면서 한국에서도 홍콩의 현 상황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최근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홍콩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제정 이후 사회질서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사업 활동에 대한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비즈니스 신뢰도 회복 되고 있습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현지 및 외국인 거주자와 기업은 기본법과 홍콩에 적용되는 국제 규약에 따라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공중위생 측면에서도 홍콩은 안전한 곳입니다.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감염 통제 조치를 통해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엄격한 대응을 취함으로써 홍콩은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감염 상황을 잘 관리했습니다. 지역 감염은 크게 억제되어 6월 초 이후 지역 감염 사례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9월까지 홍콩 시민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콩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홍콩 비거주자는 2021년 8월 9일부터 홍콩행 항공편 탑승일/홍콩 도착일 및 도착일 14일 이내에 한국에 머물렀던 경우 격리 지정 호텔에서 14일의 의무 격리 조건 하에 홍콩 입경이 가능합니다¹.

홍콩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기에 현재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경제 재개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화 약 390억 달러를 투입하여 기업 지원, 실업 방지, 시민 생활 지원에 힘써왔습니다. 홍콩 경제가 2021년 2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성장을 기록하고 4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하며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 경제의 빠른 회복으로 인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3.5%에서 5.5%로 예상됩니다. 홍콩의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치였던 7.2%에서 1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¹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ketotyو.gov.hk/common/pdf/groupb_table_kr.pdf

최신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ronavirus.gov.hk/eng/inbound-travel.html>

홍콩의 금융시장은 회복을 넘어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IPO)자금조달액 순위에서 홍콩은 지난 12년 중 7년 동안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홍콩에 유입된 IPO 자금은 미화 640억 달러를 돌파하며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홍콩달러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홍콩의 총 예금액은 미화 1조 9,1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작년 말 홍콩의 운용 순자산액도 2019년도 말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기본법에 따라 보장되는 홍콩의 독자적인 강점은 견고하며 온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국양제', 법의 지배, 독립된 사법, 정보/자본의 자유로운 흐름, 영어 구사, 홍콩 거주자의 기본적 권리와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포함됩니다. 9,000개의 해외 및 중국 본토의 기업이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44%가 홍콩을 지역 본부 또는 지역 사무소로 활용한다는 것은 홍콩에 대한 이들 기업의 신뢰와 확신을 보여줍니다.

홍콩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홍콩이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를 유지할 것임을 재천명하며, 한국 기업이 홍콩과 협력하여 총 인구 8,600만명, 미화 약 1조 7천억 달러의 GDP가 발생하는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지역의 막대한 비즈니스 잠재력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의 위상은 올해 3월에 중국 본토에서 발표된 2021-2025년 국가 발전 계획(제 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중국 본토는 홍콩을 국제 금융, 무역 및 교통,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 중심지로 육성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국제 혁신 및 기술, 국제 항공 허브와 함께 동서양이 만나는 국제 예술 및 문화 교류 허브이자 역내 지적 재산권 거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홍콩에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한국의 파트너 기업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홍콩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국 기업은 중국 본토 시장 진출 기회를 포착하는 동시에 홍콩의 낮고 간단한 세제 및 강력한 지적 재산권 보호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홍콩은 아시아 금융 위기 및 세계 금융 위기부터 사스와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전을 견뎌왔으며, 역사는 항상 홍콩이 더 힘차게 다시 도약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앞으로도 홍콩과 한국의 긴밀한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본토의 거대한 비즈니스 잠재력을 활용하고 양쪽 모두 혜택을 누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1년 9월 3일